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2. 11. 28.(월) 11:00 < 11.29.(화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28.(월)
담당 부서	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	책임자	과 장 정 권 (044-203-4540)
		담당자	사무관 오세진 (044-203-4544)

산업부, 공공기관·대학 보유 미활용 기술 무상이전

- 12개 공공기관·대학 참여, 337건 기술나눔 추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'2022년도 **산업통상자원부-대학·공공기관 기술나눔**' 에 참여를 희망하는 **기업의 신청을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접수한다.**

□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**대기업,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·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**해 주는 사업이다.

○ 201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**26개 대기업·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**하였고, **1,268개 기업에 2,766건의 기술을 이전하였다.**

< 연도별 기술나눔 전체 실적 >

구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.11월	계
이전기술	80건	76건	129건	342건	177건	327건	337건	444건	490건	364건	**2,766건**
이전기업	36개	22개	44개	91개	65개	114개	157개	226개	288개	225개	**1,268개**

□ 이번 기술나눔에는 **총 12개 기관이 참여**하는데 공기업 중에는 **한국가스공사, 한국서부발전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원자력환경공단, 한전원자력원료** 등 6개사, 공공연구기관 중에서는 **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자동차연구원, 한국한의학연구원** 등 3개 기관, 대학 중에서는 **동아대학교, 한국공학대학교, 한양대학교** 등 3곳이 참여한다.

○ 지난해 산업부-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체결한 **기술나눔 확대** MOU를 통해 **한양대학교, 한국자동차연구원, 한국공학대학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** 등 4개 기관이 올해 처음으로 기술나눔에 참여하게 되었다.

○ 또한,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**공공기관 보유특허진단사업**에 참여하는 기관 중 **동아대학교,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올해 신규로 기술나눔에 참여**하며, **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자발적으로** 올해 **기술나눔에 처음 참여**하게 되었다.

< 2022년 대학·공공기관 기술나눔 참여기관 현황 >

No	기관명	건수	이전방식	비고
1	**한양대학교(서울/에리카)**	75	양도	**신규 참여**
2	**한국원자력환경공단**	19	통상실시	
3	**한국자동차연구원**	10	양도	
4	**동아대학교**	8	양도	
5	**한국공학대학교**	8	양도	
6	**한국생산기술연구원**	7	양도	
7	**한국한의학연구원**	4	양도	
8	한국서부발전	70	양도, 통상실시	'21년 ~
9	한국수력원자력	65	양도	'18년 ~
10	한국가스공사	46	통상실시	'21년 ~
11	한국수자원공사	19	양도	'18년 ~
12	한전원자력연료	6	양도	'19년 ~

□ 이번 대학·공공기관 기술나눔에서는 **에너지, 통신네트워크, 반도체, 기계, 환경** 등의 **분야에서 337건의 기술을 공개**한다.

< 2022년 대학·공공기관 나눔기술 분야 >

기술분야	에너지	기계	환경	통신 네트워크	반도체	자동차	의료	기타	계
건수 (비중)	167 (49%)	46 (13.6%)	40 (11.9%)	26 (7.7%)	26 (7.7%)	17 (5.0%)	14 (4.2%)	1 (0.3%)	337 (100%)

□ 이번에 대학·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**산업통상자원부(www.motie.go.kr)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(www.kiat.or.kr)**에 게시된 **공고에 따라 12월 23일까지 이메일로 신청**할 수 있으며, 심의를 통해 2023년 1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“에너지 가격 상승, 금리인상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**어려운 경제 여건**이지만, 대학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통해 **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단계 성장**하고, 나아가 반도체·통신 등 **첨단기술분야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**가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